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호덕저수지서 실전형 비상대처훈련 실시

- 태풍·지진 등 저수지 붕괴 상황 가정한 훈련 통해 대응체계 점검 고흥군청·소방서·경찰서 등 60여 명 참여해 민관합동 위기 대응력 강화

2025.05.16 15:53 입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고흥지사가 기상이변과 자연재난에 대비한 실전형 비상대처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고흥지사(지사장 박승수)는 지난 5월 15일 전남 고흥군 과역면 호덕리에 위치한 호덕저수지에서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태풍, 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훈련은 실제 상황에 가까운 시나리오로 구성돼 실효성을 높였다.

훈련에는 고흥군청, 과역면사무소, 고흥소방서, 고흥경찰서, 긴급동원업체, 지역 주민 등 총 60여 명이 참여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실재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환경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훈련은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비상 대응체계 가동을 시작으로, 저수지 제방 이상 감지와 상황 전파,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점검, 복구장비 및 수방자재 긴급 투입, 주민 대피 유도 등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했다. 각 기관의 역할 수행과 협업 절차를 점검하며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현장에 투입된 긴급동원장비와 인력은 초기 대응을 신속히 시연했다. 동시에 저수지 구조물 복구 및 응급조치 훈련도 병행해 고흥지사의 실전 대응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

박승수 지사장은 "바쁜 일정에도 훈련에 참여해준 모든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에도 재난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회부/박진성기자 s9611006@hanmail.net